

평범하고 식상한 음악 거부합니다

전남대 9인 재즈그룹 '솔밴드'
탐정 모티브 등 이색 콘텐츠
트렌디한 아티스트로 입소문
29일 담양 담빛음악당서 공연



SOL뮤직컴퍼니가 자작곡 'Welcome to my hotel'을 부르고 있다.

"Welcome to my hotel...따뜻한 차와 맛있는 과자. 파티를 장식할 죽여주는 음악까지 '호텔 SOL'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Welcome to my hotel' 중에서)

밴드 리더가 '지배인' 이고 베이시스트가 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독특한 호텔. 드럼 연주자와 색소포니스트, 관객은 모두 '투숙객'이고 빨간 브라자 '하나가 사라져 탐정 'Mr.셜록'이 수사 중인 'SOL 호텔'.

지난 4일 방문한 음악동 'SOL뮤직컴퍼니' (대표 이원중) 작업실은 새빨간 입구부터 고급 호텔의 이미지를 줬다. 전남대 음악교육과 출신 아홉 명이 모여 만든 솔뮤직컴퍼니 소속 '솔밴드'는 최근 호텔리어 컨셉의 자작곡 'Welcome to my hotel', 탐정을 모티브로 한 'Mr.셜록'을 발표하며 트렌디한 지역 아티스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들은 최근 SNS에 관악기 위주의 마칭 밴드(행진곡) 스타일을 재해석한 '생일 축하곡', 레코딩부터 편집까지 손수 거친 '내러티브가 있는 노래' 등 이색적 콘텐츠로 3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오는 29일(오후 2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주관하는 '청춘마이크 J-local star' 공연을 담양 담빛음악당에서 앞두고 있다.

팀명 'SOL'은 'Season's of Love'의 약자로 인생(사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음악에 녹여내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솔밴드는 피아노, 보컬, 색소폰, 클라리넷, 드럼 5인조 세션으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부터 별도의 브라스 밴드 'BIG BOSS'를 편성했다. 이들이 모여 '솔밴드뮤직 컴퍼니'를 구성하고 있다.

결실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원중 대표는 "처음에는 2021년 전남대 정기 음악회 등에서 만나 동문끼리 '멋진 음악 만들어보자'며 가볍게 시작했다"며 "이후 클럽 페이퍼공연, 기관 지원사업 공연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전속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는 '하우스 밴드'로 거듭났다"고 했다.

이들은 음악교육과 출신답게 자체 매력에 착

하는 '절대음악'에 집중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SNS는 물론 음악 외적 이야기를 내레이션이나 분장, 뮤지컬 요소에 녹이는 '표제 음악'적 요소까지 접목하고 있다.

"제가 우리 호텔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Mr.셜록 I'm the best 탐정 이 동네/ 누가 날 몰라 죽여주는 뽀레 그리고 담배"('Mr.셜록' 중에서)

이날 자리에서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도 펼쳐졌다. '호텔 SOL'이라는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자작곡 'Mr.셜록'과 'Welcome to my hotel'을 차례로 들을 수 있었다.

센스 있는 내레이션과 힘 있는 보컬의 리드로 시작된 'Mr.셜록'은 뮤지컬 넘버를 방불케 했다.

노랫말 속 '사건일지'에 따르면 3년 전 3월 17일 평화로운 'SOL 호텔' 303호에서 호텔리어(베이시스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지배인(이원중)과 드러머, 색소포니스트는 저마다의 선율을 연주하며 진실을 밝혀내려 고군분투한다. 한 편의 음악극을 보는 것 같은 구성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해 보였다.

솔밴드가 들려주는 하모니는 일면 1910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형성된 뉴올리언스풍 재즈를 떠올리게 했다. 노동요와 블루스, 흑인 브라스밴드의 행진곡 등이 혼합된 형태로, 정해진 주 선율에 즉

흥 연주도 가미돼 재즈 특유의 풍미를 더했다.

이어지는 'Welcome to my hotel'은 솔밴드의 음악적 가치관과 하모니를 최고의 호텔 'SOL'에 은유, 투숙객(관객)들을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1950년대 웨스트코스트 백인 사이에서 유행한 '쿨 재즈' 감성이 엮여있다.

노래가 시작되자 이원중 대표는 지배인 복장을 하고 기자를 문 밖으로 이끌었다. 호텔에 대한 설명을 듣는 대목도 노래의 일부다. 안내에 따라 공연장(방) 내부로 들어서자 개성 있는 멜로디가 흘러 나왔다.

이 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갖는 공연은 지역 밴드가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활로처럼 다가왔다.

한편 솔밴드는 올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빛나는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지난해에는 광산구에서 '오월국제교류음악회'와 제20회 '광주 충장축제'에 참여해 우수상, 한국연예협회 G-pop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원중 대표는 "올해 안에는 자작곡 6곡 정도를 담은 정규 앨범 발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며 "음악"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서로 믿고 따라와주는 멤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

BTS 만형진, '아미' 품으로

12일 전역...멤버들 복귀 환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만형진(사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환영 속에 약 1년 6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진은 이날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장병들의 박수를 받은 뒤 오전 8시 50분께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조교 마크와 '특급 전사' 마크가 박힌 전투복 차림으로 힘차게 거수경례했다. 현장에는 멤버 슈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RM, 제이홉, 뷔, 정국, 지민이 마중 나와 진의 복귀를 환영했다. 복무 중인 이들은 휴가를 내고 진의 전역 현장을 찾았다. 슈가 포함 일곱 멤버 전원은 이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모여 회포를 풀고 오랜 만에 단체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다.

특히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RM은 직접 색소폰을 들고나와 히트곡 '다이내마이트'(Dynamite)를 연주하며 만행을 맞았다.

진은 멤버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품에 안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RM·제이홉과 포옹하면서는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진은 이날 오전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군 생활을 되게 잘 했다"며 전역 소감을 직접 밝혔다.

그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오랜 만이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진은 "원래 울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서 두 번 울었다"며 "1년 6개월 같이 생활한 친구들이 저를 보내는데 오열을 하더라. 제가 간부와 용사(장병) 화합을 잘 시켜서 중대 분위기

를 좋게 잘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육군 용사상'을 비롯해 사단 장급상장 2~3개와 대대장급 표창 7~8개를 받았다고 소개하며 뿌듯해했다. 동료 장병들이 직접 써 준 롤링페이퍼도 보여줬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는 진이 처음이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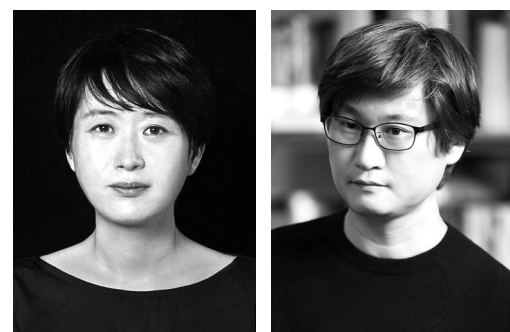
멤버 중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오는 10월 전역한다.

진은 전역 이튿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 '2024 페스타'(2024 FESTA)에 참석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만난다. 그는 1부에서 1000명의 팬을 안아주는 허그(Hug-포옹)회를 진행한 뒤, 2부에서는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습뉴스

예술가들이 읽어주는 시와 소설

예술위 '문학 집배원' 매월 2·4주 목요일 유튜브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찾아오는 '문학 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6월부터 내년 봄까지 매월 2,4주차 목요일마다 아름다운 시와 문장을 배달하는 '제17기 문학집배원' 프로그램은 온라인(문학광장 누리집 및 유튜브)으로 진행된다. '문학 집배원'으로 선정된 예술가들이 사문장을 낭독하는 콘텐츠로 이번에는 김언 시인, 천운영 소설가가 위촉됐다.



천운영 소설가 김언 시인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문학집배원은 그동안 안도현, 나희덕, 성석제, 은희경, 김연수 등 문학계에서 사랑받는 작가들이 참여해 왔다. 김언 시인은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시를 배달할 예정이며, 천운영 소설가는 27일부터 매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직접 선별한 문장을 낭독한다.

김언 시인은 "어떤 시를 독자들에게 전할지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첫 시집'이다"며 "첫 시집에 들어있는 시 한 편을 매달 들려드리며 오감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했다.

1998년 시와 사상으로 등단한 김언 시인은 시집 '숨쉬는 무덤', '거인', '소설을 쓰자', '한 문장' 등

을 출간했다. 미당문학상, 박인환문학상, 김현문학대 등을 수상했으며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

아울러 천운영 소설가는 "독자들에게 새 소리처럼 아침을 여는 문장들을 전하고 싶다"며 "문장들을 들으며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먹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천운영 소설가는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바늘'로 등단했다. 소설집 '바늘', '명랑', '반에 반의 반' 등이 있다. /최류빈 기자 rubi@

'호남 사인과 함께한 곤학의 여정'

오늘 전남대 '함께하는 인문학' 신해진 교수 특강

전남대 인문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함께하는 인문학-호남에서 시작한 인문학 여정'의 일환으로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강의를 한다. 13일 오후 6시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홀.

이번 강연에서 신 교수는 '호남 사인과 함께한 곤학의 여정'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앞서 주제와 연관된

학문적 고민을 토대로 연구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에 따르면 17세기 민족 수난기,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조상들은 직접 경험했던 부분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후 다수 문헌으로 재현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연구를 시작했던 당시만 해도 '전란 실기라는 것이 상상력이나 문학적 형상화가 미흡해 전통 문헌인가'라는 의문과 '개인 기록인데 역

사적 의미가 있을까'라는 시각이 상존했다"면서도 "그러나 조상들의 경험이나 체험이 투영된 문헌을 번역해두면 전공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올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신 교수는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 등을 인정받아 최근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통시대 문헌 발굴과 100권의 학술 저·역서를 발행하는 등 인문학 가치 확산에 기여해왔다. 2019년 용봉학술상, 2021년 용봉학술특별상, 2024년 용봉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년 이후 인문대학 최초 '연구 석좌교수'로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